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교양대 세워 신도교육”

상주 차암련 수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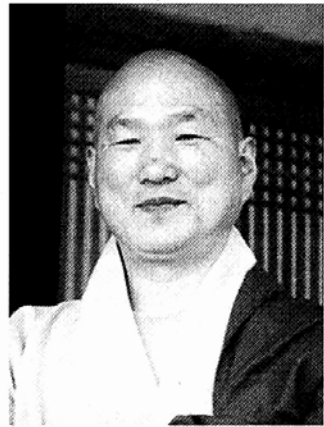
“전통사찰과 복지·교육시설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수행,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감싸고 있는 상주시는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불심이 돈독한 곳으로 유명하다. 인구 14만여명 중에 불자는 적어도 7만여명을 헤아리며, 김근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유지들이 대부분 불자들이어서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상주법우회는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할 정도다.

이 곳 상주시의 60여개 사찰의 포교와 신행을 이끄는 상주차암련회 회장 수봉스님(남장사 주지)은 “지역 불자들의 신심에 걸맞게 복지불사를 중점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이제는 신행활동이 질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만큼 신도들의 불교공부로 내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83년 6월 창립된 상주차암련은 17년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사찰의 힘을 모아 상락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다. 10년전에는 교사불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96년에는 11개 중·고등학교에 파라마이타 분회를 창립해 일찍부터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97년부터는 이런 포교역량을 바탕으로 상주시에서 처음 생긴 병립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복지불사에 나섰다. 97년 부설 어린이집 설립에 이어 ‘도움의 전화’ 상담실과 경로급식소를, 98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해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만들어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주 5일씩 120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불교가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수봉스님의 소신 때



문. 20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명을 초청해 ‘장수 한마당 큰잔치’를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도 고려시대부터 각 사찰에서 외로운 노인이나 어린이를 부양해 온 불교의 구휼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새싹포교

장수잔치·무료급식 등 노인 돕기

수봉스님은 올해 하반기에 김천·구미·상주·문경·예천 등 조계종 8교구 신하의 말사들이 동참하는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남장사가 8개 동에서 열고 있는 지역법회와 매달 2~3회 실시하는 월야정진법회, 사찰재정 공개행정 등을 회원 사찰로 확산시켜, 불자들의 신(心)을 해(교리)·행(실천)·증(깨달음) 고양을 위해 진력할 방침이다.

수봉스님은 “사찰의 주인인 불자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으로 우뚝서도록 불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스님들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상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감천사 뒷산 택지개발 물의

다세대 80가구 추진...소음·수질오염 등 우려

부산 연산동 감천사(주지 현일) 사찰 경계선에 70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환경 및 산림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대웅전 바로 뒤편에 맞닿은 뒷산에 6개동 8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산림파괴는 물론 소음,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허가가 난 부지외의 주변 개인소유지도 주택 건립 허가 신청을 냈다가 사찰측의 항의가 있따라 반려했던 상태라, 이번 건립이

진행될 경우 순차적인 자연파괴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다세대 주택 건립 예정지는 기초공사를 위해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림 상당수를 베어낸 상태. 이렇게 사찰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연계 구청은 허가에 허가자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감천사와 인근 사찰 해원정 사(주지 효명)의 신도들은 18일 해당 허가 관청인 연제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를 저지

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와 건립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 연제구청 항의방문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4일 연제구청앞에서 시위를 벌인 감천사 주지 현일스님은 “대웅전 바로 뒤에 위치한 산야를 훼손하면서 이루어지는 주택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계와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택 건립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백천사 몸속법당 약사와불

경남 사천시 백천사(주지 성필)는 22일 ‘세계최대 약사와불 불불식 및 큰스님 초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불교사

주지 성타스님, 석굴암 주지 종상스님(백천사 회주), 약천사 회주 해인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불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백천사 약사와불은 예불을 올릴 수 있는 ‘몸속 법당’이 특징으로서 길이 12m, 높이 3m75cm 규모다. 김재경 기자 055833-0156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문앞 상가건축

학교측 공사중지 요구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앞에 상가건물이 신축되는 등 난개발문제로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측은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경주시청과 공사현장대지 3백60여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잇따라 지어 하므로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는 경주시의 요청에 대학측은 상가건물과 인근 생산복지 9천여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익산 영천사 대웅전 낙성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산에 소재한 영천사(주지 도암)가 지난 7일 착공 5년만에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고사 주지 혜정, 금암암 주지 석경, 석불사 회암스님 등 사부대중 400명이 참석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복지보건대-소방서 결연

복지보건보건대학(명예학장 성오이) 23일 부산소방본부(본부장 김명현)에서 119소방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소방대원의 간병에 나선다.

진화나 긴급구조 활동 중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해 간병이 필요할 때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간병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간병을 맡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실천중심 복지 모델 개발”

대한 불교복지연구회 세미나 학회지등 발간



○20일 열린 불교사회복지연구원 개원식.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을 갖게 된 셈이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20일 부산불교회관 대법당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총)을 개원했다. 부산불교회관 3층에 문을 연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두게 되며, 이로써 부산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10개 불교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이런 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현재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등은 상호 연계와 정보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초대 원장을 맡게 된 혜총스님은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보여온 부산의 불교사회복지활동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활동 역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걸맞은 실용적이고 참신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타 복지계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불교만의 색채가 뚜렷한 프로그램 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부처님오신날 기념 세미나 개최, 성도제일 기념 학회지 발간, 현장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 공모, 일본 및 대만의 불교사회복지 사례 연구 등의 사업으로 불교복지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물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 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익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저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